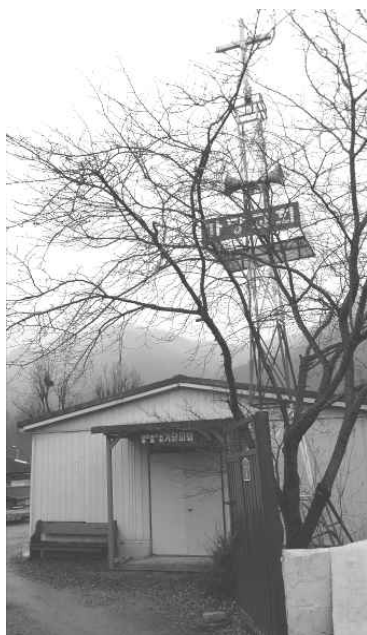


무주 가당교회 이야기

김길선(목사, 무주 가당교회)

1. 농촌목회의 동기와 목적



가당교회 모습

신학교 졸업식 때 빠지지 않고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 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신학교 학부과정 4년을 마치면서 개척교회를 세우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선배 목사님의 권유로 어느 농촌교회를 답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농촌교회는 교역자가 타지(他地)로 떠났기 때문에 목회자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교회는 가축을 기르는 축사를 개조해서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택을 둘러보면서 벽면을 보니 거

기에는 물을 길어 올릴 때에 사용하는 물지게가 걸려있었습니다. 같이 자리한 마을 분에게 물어보니 교회가 높은 언덕에 있어서 지하수를 파지 못하고 아랫동네에 가서 물을 길어서 생활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 전에 계시던 목사님께서서 3년 동안 고생을 참 많이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답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여기는 내가 갈 곳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하늘을 바라보다가 비행기가 하늘에 V자(승리를 뜻하는 Victory)로 흰줄을 그으며 비행하는 것을 보면서 “할렐루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웬지 착잡해졌습니다. 서울 집에 돌아온 후 아내는 농촌교회에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3년 과정을 더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약간의 다툼 끝에 3일간 금식기도 해보고 결정을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금식이 끝나갈 즈음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아내의 입에서 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짧은 날에 몸을 쓰시겠다는 데 그 몸 아껴서 무엇 하느냐는 질책의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신학교 졸업식 때 불렀던 찬송가가사가 떠올랐습니다.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미처 가사를 다 생각하기도 전에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말하는 내용이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20여년 전 처음 부임했을 때 찍은 가족사진

그렇게 하여 제 나이 37살에 무주 산골마을 농촌교회로 내려왔습니다. 1991년 12월이었습니다. 시급한 것은 식수 문제의 해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자신에게 실망스러웠던 것은 평소에 농촌목회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날마다 먼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모습을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은 더 답답했나 봅니다. 아내가 어느 날 한 달간 철야기도를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 당시 딸 아이(은혜)는 3살, 아들(충만)은 태어난 지 불과 백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저녁시간에 아이를 돌보아 줄 어머니가 내려오셔서 두 아이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동네 어르신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밤새 누가 돌아가셨는지 놀라서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한 달 정도의 철야기도가 마쳐질 즈음 내 심령 속에 농촌교회에 대한 소명감이 느껴지면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산 밑에 있는 교회인지라 나이 드신 어르신네들이 교회에 나오기에는 불편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마을 중심에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터를 주시기를 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어느 해 정초에 전 교인이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서 3박 4일 동안 금식하며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몸밖에 드릴 것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터를 허락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응답하셔서 현재 마을 중심에 교회를 세우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2. 부임 시 상황과 사역의 내용들

이곳 지역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계전도에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성탄절 때에는 마을회관을 찾아가서 떡국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여름철에는 도시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이발과 미용, 한방치료, 도매작업봉사, 농촌 일손돕기 등의 사역을 하면서 마을주민들과 관계의 폭을 넓혀 나갔습니다. 특별히 이웃마을을 전도할 때에는 집에서 빵을 찌서 일하는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였습니다. 또한 이웃교회 목사님과 품앗이 전도활동도 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힘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은 60여 호가 사는 마을입니다. 하나님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였는

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이웃마을 몇 군데를 차량운행을 하면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눈에 뜨일 정도의 열매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한 가정 한 가정이 나오게 됨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린 후 교우들과 함께

3. 성과 및 변화

교회 옆에는 45년 동안 무당으로 살아오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때로는 연탄도 옮겨드리고 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렇게 전도하기를 십년이 지난 어느 날, 제 아내가 무당할머니를 품에 안고 간절하게 기도드렸는데, 그때에 할머니는 울면서 예수를 믿겠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음날, 교회 장로님과 함께 그 할머니 댁을 방문하여 온갖 잡다한 우상과 무당이 쓰는 도구들을 전부 마당에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것들이 있던 자리에는 찬송이 흘러 나오는 라디오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 할머니는 하나님을 믿게 되신 후로 집을 치러 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교회를 다니라고 전도하였습니다. 그 후로 교회에 열심히 출석 하면서 한글도 제 아내를 통해서 배우고, 자신의 이름 석자도 감사헌금 봉투에 쓰게 되므로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성도가 되신 할머니는 5년간 매년 주일예배를 드리기 전에 목욕재계를 한 후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오셨고, 단 한 번도 예배를 빠지신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하다가 87세에 주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어르신 분들이 이곳 교회를 통해서 변화 받고 계십니다.

4. 문제점 및 애로사항

대부분의 농촌교회가 그러하듯이,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젊은 사람들은 타지로 나가게 됨으로써 교회의 기반이 될 젊은 일꾼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적자원의 부족은 교회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녀 교육문제도 생깁니다. 농촌목회자도 부업을 갖지 않으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노동하는 데에 치우치다 보면 영적인 고갈이 오는 것입니다. 기도생활의 부실, 말씀연구의 부실은 농촌목회자의 영성을 고갈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농촌교회에 내려가는 내 모습을 보며 신학교 동기생들이 농촌에 가면 머리가 굳어진다는 말을 하었는데 그 당시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목회현장에 와보니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에만 치우치다 보니 목회의 균형감이 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름에 도시교회들을 보내 주셔서 여름수련회를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도시교회가 농촌교회의 현실을 보고 기도하며 후원해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매입한 선교센터

복음의 최전선에서 사역하는 농촌교회 목회자는 스스로 영성을 관리하고 깨어있어야 됨을 시간이 흐를수록 느낍니다. 이곳 무주는 청정지역으로 여름철에는 도시교회 성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배당 시설로는 여름수련회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여름수련회 때 숙식할 수 있는 부속건물을 위하

여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앞 건물(구 진료소)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시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저희 농촌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도시교회와 농촌교회가 서로 기도하고 협력하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농촌목회자는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활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 쌓여있는 고립된 농촌지역이라 주변 환경과 상황은 어렵게 보일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농촌교회도 돌보시고 주관하시고 계심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농촌목회자 스스로 위축되지 않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찬양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침 한국농선회에서 전국 농어촌 목사합창단을 모집하여서 지금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장 김치호 목사님, 한국농선회 사무총장 김기중 목사님,



추수감사절 농어촌선교의 밤 찬양대회를 마치고(2011년)

지휘 금기중 교수님 지도하에 해마다 서울영락교회 선교관에서 추수감사절 농어촌 선교의 밤으로 찬양 발표회를 해오고 있는데 어느덧 5회를 마치고 올해 6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농어촌 목사님들과 정기적인 교제를 통하여 얻는 것이 많습니다. 사례발표를 통해 목회정보를 얻고, 찬양 연습을 통하여 영적으로 재충전되고 치유받는 경험을 하며 활력을 얻습니다. 농촌목회자들이 서로 사귄다와 교제를 통하여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5. 현 황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차량운행을 통하여, 교회가 없는 이웃마을 성도들이 본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성도들과 연합하여 전도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찬양 반주는 예전에는 자녀들이 맡았다가, 이제는 그 자녀들이 도시로 공부하러 나가게 되어 찬양 반주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이제 거의 없지만, 얼마 남지 않은 몇몇의 어린이들과 함께 아직도 어린이예배를 따로 드립니다. 성도님들과는 예배 후에 식사를 나누며 교제를 합니다.

교회가 마을 중심으로 옮겨옴으로써 식수문제는 해결되었고, 겨울 난방은 값비싼 석유대신 연탄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와 금요구역예배도 정기적으로 드리고,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대학등록금은 농어촌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고, 생활비는 부업으로 거둔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회의 후원은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여름마다 도시교회가 방문하면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으며, 도시교회 성도님들도 자주 방문하셔서 많은 위로와 도움을 주십니다. 교회에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도시교회 성도를 통해서 낡아서 위험했던 차량도 새 차량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렇게 농촌교회의 목회현장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6. 앞으로의 계획과 전망

올해로 이곳 농촌교회에서 25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부흥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두 가지를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소명의식이며,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선교센터를 통하여 더 많은 부흥을 꾀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전도활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더 줄어들고 고령화는 더욱 심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으로 복음의 기쁜소식을 한 분이라도 더 듣고 구원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전진해



최근 위의 사진과 같은 장소에서 찍은 가족사진. 애기들이 자라 청년이 되었다.

나아가고 싶습니다. 끝으로 농촌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복음사역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사역하시고 계시는 농촌 목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 주리라”(계 22:12) 農